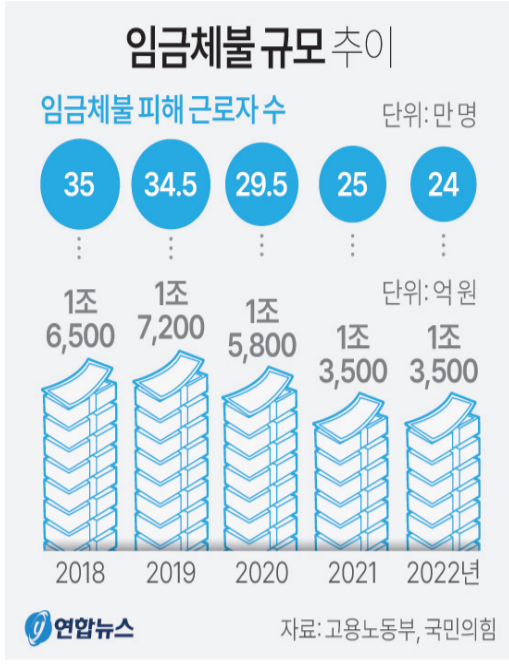


임금체불 1조3천억...상습 체불 사업주 대출 막는다



지난해 피해근로자 24만...정부, 현행 형사처벌 강화 신용 제재·정부 지원 제한...체불 청산 위한 용자 늘려

정부가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3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원→2019년 1조7200억원→2020년 1조5800억원→2021년 1조3500억원→2022년 1조3500억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2019년 34만5000명→2020년 29만5000명→2021년 25만명→2022년 24만명이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당정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체불로 규정했다.

지난해 상습체불에 해당하는 체불액은 전체(1조3500억원)의 약 60%인 8000억원으로, 사업장은 약 7600곳에 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에는 감점된다.

현제도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지연 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형사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 벌금 액수가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정은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용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까다로운 용자 요건을 얹고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상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상습체불한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라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대지급금을 갖지 않은 사업주를 신용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액·반복 수급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공파 야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요양금 근절을 위해 근로감

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체불이 특히 자주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본질적 권리"라며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카페·창고서 1인 출판사 가능해지나...규제 완화 추진

카페·창고 등에서 별도의 독립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1인 출판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읍부즈만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중에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읍부즈만은 2017년부터 일반 근린생활시설에서 별도 구역 없이 다른 업종과 공간을 공유해 1인 무점포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 주거시설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출판사 주소가 자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주거지가 공개되고 영업 신고 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할 때도 구획을 나눠 독립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카페나 창고, 업무시설 등에서 출판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읍부즈만은 규제 개선으로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도 늘렸다고 소개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는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최근 활성화되는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도매업이나 상품 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읍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고 중기부는 지난해 2월 기술 변화 업종별 창의성 등을 고려해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을 축소하기로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가정의 달 카드 이벤트

신라호텔 숙박권·챔스필드 스카이박스 이용권 등 풍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6가지 상품을 마련하고 상품별 응모 요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서울 스위트룸 숙박권 ▲나이지 조던 1(트레비스 스캇 X 프라그먼트 로우 OG) ▲애플 에어팟 프로맥스(2명) ▲아웃백 모바일쿠폰(3만원권 100명) ▲파리바게뜨 모바일쿠폰(1만원권 100명)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제공한다.

'5월엔 KJ카드가 정답' 이벤트 참여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스마트뱅킹(APP), 모바일웹뱅킹, 인스타그램(@kj_card), 카카오톡(광주은행 KJ Card), 고객센터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KJ카드 헬프센터(1577-365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동규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 TCR 월드 투어' 개막전 성황
금호타이어가 독점 공급하고 오피셜 파트너로 후원하는 세계 최정상 투어링 대회 '금호 TCR 월드 투어' 개막전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지난 29~30일(현지시간) 유럽 포르투갈 알가르브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개막전 주요 장면.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국세청, 광주시의사회와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운영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3일 광주시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의료인들의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성실납세문화조성과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운영석 청장은 국세청의 역할과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 등에 대해 직접 강연을 펼쳤다.

이밖에 광주시의사회 회원들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의료인이 알아야 할 세액공제', '병원에서 미술품 구입시 비용처리 문제' 등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영석 청장은 "호남지역 세정의 책임자로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정지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신보 해남지점 이전

전남신보보증재단 해남지점이 기존 해남우리신협 2층에서 균형 민원실 맞은편 2층으로 옮겨 4일 이전식을 갖는다.

이전식에는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 이재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석순 해남군의회의장, 김자진 해남부군수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지난 2013년 5월 개점한 해남지점은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장흥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보증으로 그동안 1만5000여 개 업체에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정양수 이사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남지점을 새 단장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모든 지원과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



수돗물 안전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는 3일 합평나비축제에 찾아 '수돗물 홍보 시음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 제공>

광주TP, 지역혁신거점기관 기능강화 추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2023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연차평가에서 '지역기업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업·기업 지원전략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얻은 광주테크노파크는 그동안 구축된 정책기획 플랫폼과 기업지

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역혁신거점기관 역할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데이터 기반 지역산업·기업 육성정책 기획-실행 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혁신성장전략 수립,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지역혁신기관 연계, 비R&D 지원사업 총괄, 지역연구장비 허브기관 구축, 수출플랫폼 운영 등을 추진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는 거점기능강화사업 내 지역산업 성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기업진담회 활성화 등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자·산·학·연협의체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기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위기·현안 대응 활성화를 위해 광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연계를 강화하고 지역혁신 거점기능 역할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채용연계형 인턴 18일까지 모집

(주)해양에너지는 오는 18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하는 분야는 ▲경영마케팅/재무회계 ▲안전관리 직무이며,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인·적성 검사→1차 면접→건강검진→2차 면접→합격통보 순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중 입사 후 4개월의 인턴과정을 거쳐 평가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채용공고 및 온라인 지원은 (주)해양에너지 채용사이트(https://recruit.hyenerg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지역 기업으로

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청년고용문제 해결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노력하는 해양에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코스피	2501.40(-22.99)
↓ 코스닥	843.18(-12.43)
↓ 금리(국고채 3년)	3.281(-0.054)
↓ 환율(USD)	1338.20(-3.90)